

질 들뢰즈의 공간담론에 기초한 렘 콜하스 실내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ior space of Rem Koolhaas's Architecture based on the Spatial Discourse of Gilles Deleuze

김석영* / Kim, Suk-Young
김문덕** / Kim, Moon-Duck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al space of Rem Koolhaas based on the spatial discourse of Gilles Deleuze, a philosopher of post-structuralism which comprehends pluralism accepting even contingency and uncertainty beyond deterministic attitudes of structuralism that has led the western discourses since the 19th century.

First of all, this research will reflect on Deleuze's spatial concept through literatures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architectural spaces. Then, on the basis of these characteristics, it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which were applied to the interior space of the recent architectural works of Rem Koolhaas to find out how Deleuze's spatial discourse was embodied.

Among Deleuze's speculations, the characteristics which falls under the spatial discourse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degree between the striated space and the smooth one, the space of events and singularity, and the space of the multiple sense. These analysis words are used to look into the correlations among the specific practicing methods embodied in the architecture of Koolhaas.

In conclusion, in the architectural space of Rem Koolhaas,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Gilles Deleuze's spatial discourse of post-structuralism were embodied by the methods such as (1) Space of continuous transition, (2) Space of the multiplicité accepting contingent events, (3) Space of the multiple sense, and (4) Space of movement.

키워드 : 렘 콜하스, 질 들뢰즈, 매끄러운 공간, 사건
Keywords : Rem Koolhaas, Gilles Deleuze, Smooth space, Ev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의 생활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 정주의 공간개념의 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바우하우스, 국제주의 양식 등 근대 디자인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합리성과 기능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과는 달리 컴퓨터의 데이터에 의해 예측되는 공간, 인간 감성에 초점이 맞춰진 공간 등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해 결과들이 만들어 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19세기 이래로 서구의 담론을 이끈 구조주의의 합리적이고 결정론적 입장에서 우연과 불확실성까지도 인정하면서 다원주의적 입장을 포괄하는 후기 구조주의로 변화하는 흐름과도 맥락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자적 방법으로 건축에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는 네덜란드의 건축가인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공간 개념이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공간담론과 연관성이 있음을 전제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렘 콜하스 자신은 스스로 들뢰즈로부터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FOA의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 Polo)를 비롯한 많은 건축가와 평론가들은 콜하스의 작품이 들뢰즈의 담론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

* 정회원, 동양공업전문대학 실내디자인과 전임강사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따라서 연구는 후기구조주의 사유의 중심에 있는 들뢰즈의 공간론을 고찰하고 그 틀로서 램 콜하스의 공간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실현된 공간에 적용된 구체적인 실천수법을 분석함으로써 서로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들뢰즈의 사유는 그 폭과 층위가 방대하여 건축과 공간론 이상의 거대 담론적 차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들뢰즈 공간론은 『천개의 고원』에서 밝힌 매끄러움과 흠 패인의 공간적 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간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특히 들뢰즈의 담론은 그 폭이 넓지만 인간의 신체와 미세감각으로 까지 담론의 층위와 폭을 좁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콜하스도 자신의 저서 『정신착란증의 뉴욕』에서 도시전체의 양상을 다루면서도 ‘뇌엽절제술’²⁾이란 단어로 건축의 외피로부터 내부의 기능이 분리돼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건축 내부 공간의 프로그램에까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 불매 들뢰즈의 공간론과 콜하스의 공간개념이 인간이 직접 점유하고 사용하는 실내공간에서 특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방법은 들뢰즈의 공간개념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실내 공간개념과 연결되는 특성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특성들과 연관성을 갖는 현대 공간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램 콜하스의 최근 건축 작품을 분석하여 들뢰즈의 공간담론과 콜하스의 공간과의 상호 연관성을 밝힌다. 분석의 대상은 2000년 이후 완공된 공간을 대상으로 하되 한시적 전시장, 임시 시설, 단일 공간 등은 제외한다.

2. 들뢰즈 공간담론의 특성

본 장은 들뢰즈의 사유에서 공간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 고찰한다. 연구의 범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들뢰즈를 비롯한 후기구조주의라는 거대 담론의 모든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건축공간의 범주를 넘어선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특성에 한정지어 고찰한다.

2.1. 흠 패인 공간(striated space)과 매끈한 공간(smooth space)의 정도(degree)

들뢰즈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논리를 부정하고 긴장관계의 정도(degree)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르는 생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가 제안하고 있는 공간적 특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흠 패인 공간(striated space, strié)과 매끈한 공간(smooth space, lisse)의 제안이다. 흠 패인 공간이 수치적 계량적 공간이라면 매끈한 공간은 벡터적, 위상학적 공간이다. 매끈한 공간의 경우 “공간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점유”되는 데 반해 흠 패인 공간은 “공간이 점유되기 위해 헤아려진다.”³⁾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공간 특징의 단적인 모습으로서 매끈한 공간이 어떠한 공간으로 규정되지 않고 매마다 점유되는 특성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 흠 패인 특징은 공간의 특정 성격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좌표계에 의해 규명되고 계량된 합리적 특성을 갖는다.

흠 패인 공간의 크기 또는 구분이 규칙적이기도 하고 불규칙적이기도 하지만 항상 규명이 가능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매끈한 공간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려있는 판(plan)으로 형상화 될 수 있어 계량적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위에 발생하는 갖가지 우발적 사건으로 나아가는 공간이다. 연이은 사건의 발생에 의해 끊임없이 재편되는 생성의 공간을 의미하는 매끄러운 공간은 들뢰즈 공간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며 유목적 사고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공간은 흠 패이고 매끄러운 공간의 대립관계가 아니다. 두 공간은 서로 혼합된 채로 존재한다. 매끈한 공간은 끊임없이 흠이 패인 공간으로 속으로 번역되고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한편 흠 패인 공간은 부단히 매끈한 공간으로 반전되고 되돌려 보내지는 속성을 갖는다. 즉 이분법적 구분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흠이 패인 정도 또는 매끄러운 정도에 의해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보여준다. 『천개의 고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공간의 모델은 <표 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들뢰즈는 공간을 파악함에 있어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이 아닌, 복잡하게 이행하고 충돌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정도와 방향성(vector)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1> 흠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의 특성 비교

흠 패인 공간(striated space)	매끄러운 공간(smooth space)
직조, 직물	펠트, 섬유, 얽힘
정주적, 닫힌 공간	유목적, 열린 공간
바느질, 뜨개질	패치워크, 코바늘 뜨개질
절단된 음정, 모듈	연속적 변주, 형식의 연속 전개
위도, 경도 배열위의 항해	유목적 항해, 전(前)-천문학적 항해
광학적, 원거리적	촉지적, 근거리적
외연적	내포적(spatium), 질적
계량적, 중앙 집중적	비계량적, 탈중심적
수목형	리좀(rhizome)형

들뢰즈가 위의 두 공간을 구분한 것은 직접적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성격을 달리하여 구별되는 세계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건축공간을 형태로서 이

1) Alejandro Zaera, Notes for a Topographic Survey, El Croquis Vol. 53+79, Madrid, 1998, pp.40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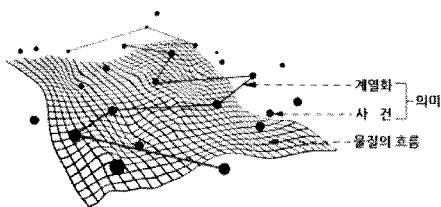
2) 램 콜하스, 정신착란증의 뉴욕, 김원갑 역, 태림문화사, 서울, 1998, pp.85-86

3)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서울, 2001, p.693

해하기보다는 공간의 의미로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공간은 서로 감응하면서 끊임없는 변화 속에 존재하게 된다. 들뢰즈는 이러한 과정에서 베르그송의 시간개념⁴⁾을 받아들인데 이는 '연속적 변이'이다. 시간은 무리수의 개념과 같이 아무리 미세하게 분할하고자 하여도 나눌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며 나뉜다하면 본성마저도 바뀐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들뢰즈의 공간은 그 정도를 달리하지만 흠 패임과 매끄러움 사이에서 시시각각 강도(intensity)를 달리하는 끊임없는 진동사이에 놓인 경계면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2.2. 사건과 특이점

흠 패임 공간에 갇히는 것을 경계하고 매끄러운 능동적 탈주 공간에서 의미를 만드는 것은 사건이다. 들뢰즈는 의미를 물질적 차원에서 다룬다. 물질의 흐름(운동)으로부터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형성하는 관계의 계열화⁵⁾에 의해 비로소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다. 즉,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의 관계로 보자면 여러 기표들이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의한 기의의 형성이다. 따라서 의미는 불확정적이다. 다만 시간의 '연속적 변이'속에서 사건들이 생성되고 다른 사건들과의 차이에 의해 계열화를 이루므로 인간에게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림 1> 사건과 계열화의 개념도

물질적 차원에서 사건들은 순간순간 문화적 차원으로 솟아오르고 솟아오른 사건들은 계열을 이룸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⁶⁾ 계열화는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고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되어 나간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역할은 특이점(singula point)이다. 들뢰즈는 특이점들을 고정불변으로 보지 않는다. 사건(특이점)들의 계열화는 시간 속에서 능동적으로 재편되고 이행된다. 사건이 일정하게 계열화되면 배치가 이루어지고 그 배치가 변해 계속 새롭게 계열화 되면서 그 의미 또한 바뀐다. 계열화의 강도(intensity)에 따라서 흠 패임과 매끄러움의 정도가 결정된다<그림 1>. 특이점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 존재 할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과 계열의 관계들이 유목적 이행을 반복하는 것과 상대되는 개념, 즉 계열들이 고착되고 정주적 성격으로 흐르는 경우가 '영토화(territorialisation)'다. 그리고 영토화와 상대되는 개념인 유목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탈영토화(déterritorialisation)'이다. 들뢰즈의 공간담론은 탈영토화를 향하고 있다. 반면 영토화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탈영토화 하는 극단의 공간은 의미조차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용을 전제하는 건축공간이 구체적 현실공간으로 구성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일반적 속성 때문에 탈영토화만이 존재하는 공간은 구현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들뢰즈의 공간담론에 따르면 건축공간이란 영토화와 탈영토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기계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든 고정되지 않은 채 다양한 사건들이 생성, 소멸되는 과정을 수용하는 살아있는 기계이다.

2.3. 다중감각의 공간

들뢰즈는 인식론적 의미의 지각(perception)과 구별되는 존재론적 감각(sensation)의 우위를 주장한다. 공간인식의 주체인 인간에게 들뢰즈의 감각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촉각적 시각이다.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회화의 특징으로서 자신의 감각론을 설명한 『감각의 논리』에서 눈으로 더듬는 시각, 즉 근거리에서 대상을 몸 전체의 분화되지 않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밀도 높은 감각을 설명한다.⁷⁾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공간을 감각하는 방법도 회화와 같아서 소설점을 중심으로 모든 감각의 대상이 일정하게 배치되는 원거리적 시각이 아닌 중심성이 사라진 유동적인 공간⁸⁾ 내에서 촉각에서 분화된 여러 총리의 다중적 감각을 통해 더듬듯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들뢰즈의 공간담론이 주장하는 바는 기능이 일정하게 분화되고 확정된 공간과 비교할 때 비고정적 분화와 변화에 대한 능동적 수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식주체에게 일으키는 작용이다. 들뢰즈의 감각은 몸에서 직접 포착하고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자이다. 동일한 신체가 감각을 주고 다시 그 감각을 받아들인다. 이 신체는 동

4)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의 시간개념은 지속(duree)이다.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42.195km라는 전체 경주로는 시작부터 마지막 결승점까지 부분적으로 강도를 달리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긴 연결체이다. 예를 들어 전체 경주로 중 임의의 부분 구간(A)을 끊어서 달리는 주자가 있다면, 같은 A라 하더라도 전 구간을 완주하는 마라토너와는 다른 강도의 느낌으로 달리게 될 것이다. 부분을 달리는 주자와 완주하는 자에게는 서로 다른 각각의 연속적 시간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5) 이정우, 시물라크르의 시대, 거름, 서울, 1999, pp.109-113

6)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서울, 2000, pp.5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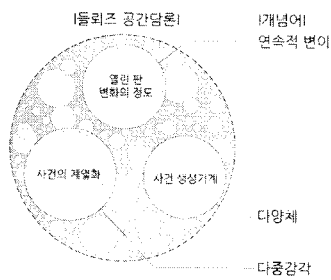
7) 이러한 신체적 특성을 [천개의 고원]에서는 '기관 없는 몸체'로 설명한다. "기관 없는 몸체는 기관들에 대립한다기보다는 유기체를 이루는 기관들의 조직화대 대립한다. 기관 없는 몸체는 죽은 몸체가 아니라 살아 있는 몸체이며, 유기체와 조직화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생동하고 북적댄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p.67

8) 리좀(Rhizome)적인 특징이다. 리좀은 근경(根耕), 뿌리줄기로 번역되며 줄기가 곧 뿌리인 식물을 [천개의 고원(1979)]에서 본성적인 욕망을 구조로부터 어떻게 탈주시킬 것인가를 밝히면서 수목으로 은유되는 서구 철학을 비판하기 위해 새로 고안시킨 개념이다. 이영수·임기택, 들뢰즈 공간담론과 유연적 생산구조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권 6호 통권 212호, 2006년 6월

시에 대상이고 주체이다.⁹⁾ 베이컨의 회화가 폭력을 재현하기 보다는 신경 시스템에 작용하는 감각의 폭력을 표현함으로써 그림을 바라보는 주체는 회화를 통해 감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된다.

들뢰즈의 이러한 감각론은 공간과 공간 감각의 주체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회화와 공간 모두는 그리거나 설계하는 작업의 주체, 인식의 대상 그리고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라는 관계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여된 기능에 의해 사용행위가 정해지는 공간이 아닌 공간이 내부의 사용자인 신체에게 감각을 주고 다시 신체의 감각에 의해 행위가 발생하도록 하며 발생한 행위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들뢰즈적이라 할 수 있다. 베이컨이 구상과 형상사이에서 문지르기와 뿌리기 등의 수법으로 힘을 표현하고 존재론적 변화, 즉 ‘-되기(-becoming, devenir, 生成)’를 시도한 것과 같이 건축가는 공간에 있어서 재현적 건축을 벗어나고 ‘-되기’를 유발하고 수용하는 공간을 지향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들뢰즈의 공간담론은 옳고 그림을 결정하는 수목적, 결정론적 사유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토대도 존재하지 않는 허무의 공간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단정적인 언표화가 거부된다. 하지만 매끄러운 공간과 흠 패인 공간 사이에 유동적으로 위치하며, 시간에 따라서도 존재가 변화하고 있는 연속적 변이의 기계이다. 이러한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사건들은 계열화에 따라서 의미가 발생되고 다시 소멸되며 그로 인해 본성마저도 변화하는 다양체적 공간이다. 감각론적으로도 감각기관들의 조직화에 대립한 다중감각으로서 주체와 대상에 상호작용하며 생성을 이끄는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러한 공간 개념은 다음의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 될 수 있다 <그림 2>.



<그림 2> 들뢰즈 공간담론의 개념도

3. 현대 공간에 나타난 들뢰즈 공간담론

현대 공간조형은 다양한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 들뢰즈의 공간담론적 특징과 관련된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건축가 자신이 스스로 들뢰즈 담론과의 관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품의 내용면에 있어서 상관관

9)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서울, 2008, pp.47-49

계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본 장은 실내·외공간에 한정을 두지 않지만 들뢰즈 공간담론적 특징과 관련이 깊은 현대공간 사례와 함께 특징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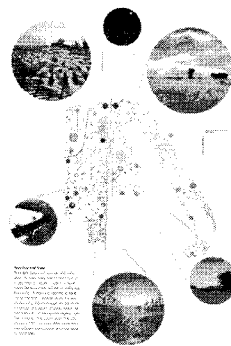
앞장에서 고찰한 공간적 특징은 그 자체의 언표화와 세분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의 특성을 명료한 단어로 정의하는 과정도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분석 기준은 절대적 경계와 측정의 기준이 아닌 전체의 웨마(schema)를 읽기 위한 특징으로 정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할 열린 판과 정도, 사건과 계열화 그리고 생성기계로 구분한 분석도구들은 개별적이기 보다는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3.1. 열린 판과 변화하는 정도(degree)의 공간

들뢰즈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공간적 특성은 흠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이다. 그러나 두 공간 개념 중에서 극단적으로 편향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정과 함께 진행된 흠 패임에 상대되는 개념인 매끄러운 공간이 서구의 문명이 만들어낸 오늘날 이전의 모습이란 점을 감안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인간은 문명화 이전의 문화와 현대 문화 사이에서 적절한 도주선(ligne de fuite)¹⁰⁾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 사상의 근간이 되어온 일자(一者) 중심의 사유를 탈피하려는 시도들이었다.

이러한 사유를 배경으로 하는 공간은 절대 권력을 부여 받은 한명의 마스터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결과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그 수는 명확히 할 수 없으나 다수의 참여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공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들은 구획된 부분들에 의한 닫힌 집합이 아닌 열린 판의 공간이며 그 판 위에 중심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

방으로 성장 발전될 수 있는 리즘적 특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렘 콜하스, 브루스 마우, 다운스뷰파크, 리즘적 동선과 잠재적 프로그램의 다이어그램, 2000 / www.pdp.ca

『S, M, L, XL』의 편집을 담당했던 그래픽디자이너 브루스 마우(Bruce Mau)와 렘 콜하스의 다운스뷰파크(Downsview Park) 계획안에는 공원의 가시적 결과가 제시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의 결과로 마우와 콜하스의 “Tree City”가 당선되었는데, 뉴욕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움스테드식으로 구축된 공원 계획이 아닌 변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비어 있는 대지(Tabula Rasa)¹¹⁾

10)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p.22

11) ‘비어 있는 대지’는 본 연구의 분석 도구인 ‘열린 판’과 일치하는 개념이면서 렘 콜하스의 『S, M, L, XL』(p.1031)에서 언급한 ‘타블라 라자(Tabula Rasa)’와도 일치하는 개념이다. 타블라 라자는 새로운 글자를

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1,000개에 달하는 작은 통로는 리즘형태로 뻗어져 중심성은 사라지고 식재와 구성요소들은 사용자들에 의해 15년이란 기간 동안 서서히 진화하도록 한 것이 설계의 골자다. 공원은 표면적인 완성보다는 변화와 성장에 집중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다운스뷰 파크 홈페이지¹²⁾에 변화과정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성장 정도가 오히려 그 최종결과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공원은 진화를 담아내기 위한 적절한 홈 파임과 시민들에 의해 가꿔져 나가는 잠재적 매끄러움이란 양 측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존재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본 연구가 다루는 들뢰즈 공간담론의 경향은 확정적 프로그램과 형식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변화를 받아드리는 열린 판 형태의 수용체적 공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상태는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사건의 계열화(ordering)에 의해 의미를 갖는 공간

들뢰즈에게 있어서 사건은 물질의 표면 효과이기도 하지만 의미기도 하다. 사건을 소유하는 것은 생성, 운동, 변화를 소유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의미를 소유하는 것¹³⁾으로서 사건의 의미는 다른 사건들과의 이웃관계, 즉 계열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사건과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을 장(場)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장의 개념 위에서 영토화와 탈영토화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 건축의 일부 공간들은 계열화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는 사건들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사건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대표적 사례가 1991년 West 8이 로테르담에 설계한 쇼우부르흐플레인(Schouwburgplein)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에 위치한 극장의 전면에 계획한 인터랙티브한 광장이다. 광장에는 다양한 재료의 바닥면과 간헐적 수공간, 움직이는 구조물들 그리고 야간의 조명들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이 만들어 졌으며 이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위(사건)들을 수용하는 가능성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계획되었다<그림 4>. 이 광장에서는 광장의 빈 공간이 산책, 운동, 유희, 다양한 이벤트 등의 프



<그림 4> West 8, 쇼우부르흐플레인, 로테르담, 1991 / www.west8.nl

새기기 위해 돌판의 문자를 지워낸 백색상태의 석판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아리스토텔레스 이전부터 사용되었는데 근대에 이르러 미스 반데어 로에 등의 국제주의 건축가들에 의해 새로운 건물을 계획하기 위해 정리된 이상적 공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을 램 콜하스가 새로운 개발을 위해 인위적으로 비워진 대지, 혼돈과 잠재력을 수용하기위한 대지를 표현하기위해 전략으로 재사용한 용어이다.

12)www.pdp.ca의 Corporate Information 참조

13)이정우, 앞의 책, pp.132-135

로그램들을 유발하고 담아내는 기계로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램 콜하스의 공간들 또한 같은 개념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르나르 추미의 계획안이 당선되었던 파리 라 빌레뜨공원 계획안에서 램 콜하스는 모방적이고 완결된 자연환경의 구축이 아닌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채워진 기계의 개념을 제안했다. 특질 없는 격자(generic grid)의 배경위에 5가지 조직화된 유형들을 무작위로 중첩시켰다. 5가지의 다른 가설들에 통계적으로 발생된 데이터의 결과를 통해 램 콜하스는 혼돈된 다양성을 유도한 것이다.

위의 두 공간들은 담아내는 무수한 사건들이 계열화를 이룸으로서 산책-기계, 운동장-기계 혹은 놀이터-기계 등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내부에서 작동하는 힘에 의해 발견되는 내포적(intensif)이며 질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 다양체(manifold, multiplicité)적 특질¹⁴⁾이다. 결과적으로 램 콜하스를 비롯한 몇몇 현대 건축가들의 실내공간은 내포적이며 다양체적 특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사건을 일으키는 생성기계로서의 공간

앞에서 고찰한 들뢰즈적인 현대 건축공간은 재현적이기 보다는 작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자(一者)의 지위를 얻은 건축가에 의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와 공간기능이 결정되는 것이 근대를 위시한 종전 건축의 두드러진 경향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공간은 공간 내의 사용자에게 행위를 이끌어 내는 장치로서 작용한다는 관점이다.

건축공간이 예측 불가능한 무수한 행위를 모두 담아내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능과 행위의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혼돈을 수용하는 이중적 방법론이 적용된 사례는 확인할 수 있다. West 8은 네덜란드 이스턴 스킨트의 폭풍우 방파제(Eastern Scheldt Storm Surge Barrier 1990)에서 검정색 혼합 깎테기와 백색 조가비의 띠로 만들어진 방파제의 섬을 계획함으로써 보호색과 먹이에 따른 새들의 행위를 일정 정도 이끌어내고는 가능성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간이 역동적 무형성과 유형의 실체사이에 존재하는 사건의 생성의 기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5>.



<그림 5> West 8, 폭풍우 방파제, 이스턴 스킨트, 1990 / www.west8.nl

구체적인 행위는 아닐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축구조물도 확인할 수 있다. 라스 슈퓌브뢰크(Lars Spuybroek)

14)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pp.71-72

의 NOX가 네덜란드 투틴헴(Doetinchem)에 계획한 D-tower이다. 미디어 기술의 혼성에 의해 만들어진 타워는 시민들의 인터넷 홈페이지¹⁵⁾의 접속을 통해 시민들의 감정 상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빨강(사랑), 파랑(행복), 노랑(공포), 초록(증오)으로 조명의 색상이 변화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타워를 비추는 웹캠에 의해 접속자들은 타워의 조명을 자신의 모니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은 건축에 적용되어 인터랙티브한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종전에 건축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실험들을 시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행위와 사건 그리고 감성의 변화를 생성하는 공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MVRDV는-자신의 직관과 창의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성가신 요소들인 법규 규제를 비롯한 대상지의 환경을 포용해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 의사결정행위로서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확정짓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결정하되 나머지는 사람들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데이터에 의한 경관이란 의미의 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이다. MVRDV는 제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도시와 건축, 건축과 공간과의 관계를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단편화된 블록들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연속성은 대지의 확장성과 함께 건물 내부에 대지를 구축하는 개념의 압축된 형태로 나타난다.¹⁶⁾ 데이터스케이프는 통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간을 구성해 내는 기계로서 작용한다. 도시맥락의 연장이 강조된 실내공간으로는 도시의 다양한 사건이 끌어들이지고 프로그램들은 병치, 중첩된 형태가 된다. 기존 건축에서 경험하지 못한 공간의 형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사건과 감각이 유도되는 것이다.

4. 렘 콜하스의 실내공간에 적용된 들뢰즈적 공간사례 분석

본 연구는 렘 콜하스의 건축 공간 중에서도 실내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집중한다. 따라서 분석의 사례는 계획안이 아닌 실현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각 프로젝트의 실내 공간에서 들뢰즈의 공간담론적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과 실천수법을 통해 렘 콜하스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한다.

(1)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2005)

서울대학교 정문에 가까운 경사진 녹지를 부지로 하는 기념비적인 사각형태의 미술관이다. 용도,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건축물의 배치, 내부 동선의 구성 등이 로테르담에 위치한 쿤스트할(Kunsthal)과 유사하게 계획되었다. 경사진 대지위로 들어 올려진 매스의 하부는 일반인을 위한 통행로를 구성하고 내부는 이중의 나선의 동선을 통해 전시실, 다목적 홀 등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경험하도록 계획되었다.

① 열린 관과 변화하는 정도의 공간: 주 동선은 출입구에서 중앙의 나선형 계단을 통해 최상층의 전시실로 바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층부터 계단, 경사로 등을 통해 하부로 이어져 다목적 홀, 강당 등의 기능공간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부지에 주어진 레벨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했으나, 중앙의 코어와 외피를 구성하고 있는 노출된 트러스를 제외하면 기둥을 비롯한 구조는 숨겨져 있다. 따라서 실내공간의 개방성은 최대화 되었으며 각각의 공간들은 별도의 출입구 없이 동선 상에서 연결된다. 3층 전시실과 2층의 다목적 홀은 전시의 구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유동적인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② 사건의 계열화에 의해 의미를 갖는 공간: 각 공간들의 레벨차이에 의해 완화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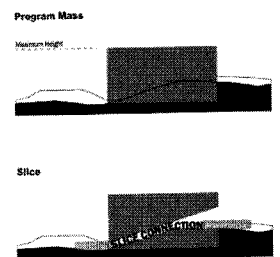


<그림 6> 서울대학교 미술관, 홀과 강당을 사선으로 관통하는 동선, 2005 / Rem Koolhaas, CA 현대건축사

간의 경계들은 실내의 연속성과 함께 상호 연계성을 갖는다. 다목적 홀과 강당의 동선은 계단식 좌석의 중앙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도록 계획되어 사용여부, 목적에 따라 별도의 동선을 선택할 수 있다<그림 6>. 또한 개방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변화는 연계된 다른 공간에 까지 시각적, 청각적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2층의 다목적 홀에는 공간 내에 임의의 경계구분이 가능한 커튼레이일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가변적 분절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내부 공간은 시간의 흐름과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른 연속적 변화와 계열의 재편이 가능하도록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사건을 일으키는 생성기계로서의 공간: 대상지에 부여된 조건은 대학 내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이러한 조건은 외부형태를 결정과 내부공간의 구성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그림 7>.

미술관 내부에서 상호연관성의 침투와 프로그램의 변화는 관람자로 하여금 우연적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중앙의 나선형 계단은 전시 내용에 따라 동선 또는 전시실로 활용이 가능하다. 동일한 공간에서 경험되는 우발적 사건들은 관람자로 하여금 다른 행위의 결과를 유도 할 수 있다.



<그림 7> 서울대 미술관, 형태생성 다이어그램, 2005 / Rem Koolhaas, CA 현대건축사

15)www.d-toren.nl/webc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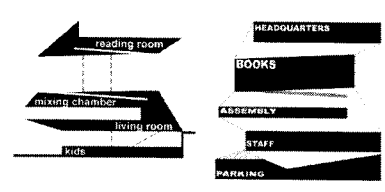
16)조영배, MVRDV의 건축에 나타난 공간 구성 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1호 통권66호, 2008. 2

공간의 변화 가능한 계열화는 생성기계로서 작용하고 있다.

(2) 시애틀 공립도서관, 시애틀(2004)

도서와 새로운 미디어들을 통합하여 수용하는 시애틀 도심에 위치한 11층 규모의 도서관이다. 콜하스의 라빌레뜨공원 계획안과 유사하게 독립된 프로그램들을 수용하는 독립적 플랫폼들의 무작위적 중첩과 사이 공간 그리고 이 모두에 일체감을 부여한 외피를 이용하여 새로운 도서관을 제시했다.

① 열린 판과 변화하는 정도의 공간: 콜하스는 도서관의 기존 프로그램인 도서관 본부, 열람실, 회의실, 직원실 그리고 주차장 등과 새로운 프로그램인 독서 공간, 다목적 미디어 공간인 믹싱챔버(mixing chamber), 서비스데스크와 카페 등이 배치된 리빙룸(living room) 그리고 어린이 공간을 중첩시켰다. 독립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플랫폼들은 홈 패인 공간의 성격을 갖지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중첩은 서로의 층들로 인해 새로운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그림 8>. 도서관의 공간은 유목적 사고에서 기인하여 수직으로 세워진 ‘열린 판’의 형태이자 ‘밀집의 문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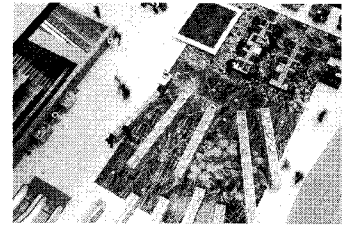
<그림 8> 시애틀 공립 도서관, 다이어그램, 도서관의 기존 프로그램(우)과 부가 프로그램(좌)의 중첩, 2004 / www.oma.nl

② 사건의 계열화에 의해 의미를 갖는 공간: 콜하스 자신도 “이것은 주변을 둘러싼 도시의 미완성 파편들과 재구성에 의한 기계”¹⁷⁾라고 표현함으로써 결정론적 프로그램이 아닌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재편되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플랫폼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내부에서는 가변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상 층 출입구를 통해 접근하는 리빙룸과 지하층에 걸쳐 배치된 오디오리움은 별도의 구획이 없는 오픈플랜의 개념이 적용되어 동선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며 목적에 따라 강연과 집회 등을 수용 할 수 있다. 오디오리움의 지하 영역에서는 콘스트랄이나 서울대 미술관에서 확인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커튼으로 임시 차단막을 설치 할 수 있는 유연한 계열화의 ‘-되기’를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의 전체적 공간의 계열화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장치는 수직 동선이다. 도서관의 중앙 보이드 공간에 거대한 기둥의 형태로 배치된 엘리베이터는 맨해튼 ‘밀집의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장치이기도 하다. 콜하스의 라빌레뜨 계획에서 혼돈된 다양성을 의도한 대로(boulevard)¹⁸⁾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다.

그 외에도 각 층을 연결하는 선명한 연녹색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각 플랫폼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산책로(Promenade)의 역할을 한다.

③ 사건을 일으키는 생성기계로서의 공간: 각각의 플랫폼은 서로 다른 감각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리빙룸은 확대된 잔디와 나뭇잎 이미지가 전사된 바닥소재와 자유로운 가구가 배치되었고, 리빙룸에서 시작해서 오디오리움을 거쳐 2층 아래의 어린이공간까지는 커다란 카펫처럼 계획된 짙은 마루 소재가 적용되었다. 4층의 회의실은 핫핑크색상의 구불구불한 동굴형태로 계획되었고 도서 열람실은 나선형 경사로의 공간을 실현시켰다. 10층의 독서실은 푸른



<그림 9> 시애틀 공립도서관, 리빙룸(living Room) 바닥에 적용된 그래픽, 2004 / www.iwan.com

빛의 마름모형 천창과 운모(mica)의 확대된 이미지를 붉은색 바탕위에 모노톤의 사진으로 표현한 바닥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사용자는 다양한 동선체계 속에서 각각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공간들과 마주하도록 의도되었다. 강렬한 색상, 거대한 축척, 그에 수반되는 우연적인 경험들은 새로운 공간을 체험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3) 지하 트램 터널, 헤이그(2004)

헤이그시청사가 위치한 도심 중앙부 근처에 도로의 교통량을 최소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하 서비스 터널이 만들어졌다. 이 지하 서비스 터널은 두 개의 지하철역과 주차장시설을 갖춘 1,250m의 여러 층을 가진 터널로 구성되었으며, 도심의 지하공간에서 여러 기관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지하의 연결체 역할을 한다.

① 열린 판과 변화하는 정도의 공간: 콜하스는 도심의 지하공간을 물질적으로는 채워져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비워진 대지, 즉 타블라 라자(Tabula Rasa)로 간주했다. 어떠한 홈 패임도 없는 지하에 역, 보행로, 주차장, 포스터 갤러리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복합적 동선의 궤도(trajectory)를 만들었다.

② 사건의 계열화에 의해 의미를 갖는 공간: 내부의 통로로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안하고 동선의 교차와 연결을 합목적성에 근거한 규칙적이고 일관된 방식이 아닌 사선으로 교차하고 분기되는 피라네지적 공간¹⁹⁾을 만들므로 해서 보행자들이 이동과 함께 연속적 시각의 경험 할

17)Sheri Olson, Its a machine that fragments and reconstitutes the city around it, Sheri Olson, Thanks to OMA's blending of cool information technology and warm public spaces, Seattle's Central Library kindles book lust, Architectural Record, 2007. 7, p.89

18)렘 콜하스는 라빌레뜨 공원 계획안에서 마천루의 기준층에 중첩된 것과 유사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띠 형식으로 적층 시켰다. 그 위에 남북으로 프로그램의 띠를 가로지르면서 과학박물관과 음악도시를 직

선으로 연결하는 대로(boulevard) 그리고 띠의 교차점에서 프로그램적 유희를 배가시키는 특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로를 보완하는 산책로(Promenade)의 이중적 동선체계를 제안했다. Rem Koolhaas · Bruce Mau, 앞의 책, p.927 참조

19)김홍기, 피라네지 동판화 카르체리에 나타난 카프리치오적 공간개념의 생성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6호 통권71호, 2008. 12

수 있도록 계획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림 10>. 터널속의 보행로는 지상, 주변건물, 지하의 휴게 공간 등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계열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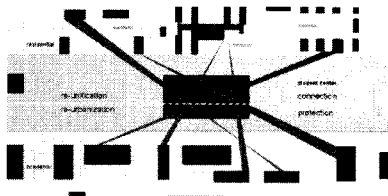
<그림 10> 지하 트램 터널, 사선으로 교차하는 지하보행동선, 2004

③ 사건을 일으키는 생성기계로서의 공간: 지하공간이고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연적인 공간의 경험이나 다양한 행위의 수용은 경험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이형적 천정형태와 동선의 다양한 체계 그리고 특징 없는 재료의 일관된 적용은 미로적 공간경험을 이끌어 내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4) IIT 맥코믹 트리플 캠퍼스 센터, 시카고(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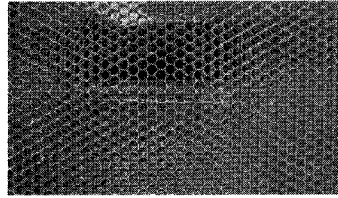
근대의 거장 미스 반 데어 로헤가 계획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격자형으로 구획된 대상지에 대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디오리움, 서점, 컴퓨터실, 학생회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캠퍼스 센터를 계획했다.

① 열린 판과 변화하는 정도의 공간: 고가철도로 인해 동·서로 분할된, 과거 IIT의 중심 부지에 캠퍼스 센터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콜하스는 부지 주변 상황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의 조각들을 밀도 있게 모자이크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기존 도로 조건에 의해 구획된 부지에 배치된 외관은 도시적 맥락을 따른 박스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로는 주변 건물들의 네트워크를 끌어들이 도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도시 속 건물을 제안했다<그림 11>. 캠퍼스 센터가 계획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동선의 흔적을 내부 구성에 적용하여 시간적 연속성과 함께 주변으로 열려진 공간을 의도했다.



<그림 11> IIT 캠퍼스 센터, 다이어그램, 2003 / www.oma.nl

② 사건의 계열화에 의해 의미를 갖는 공간: 외부로는 건물의 사용자인 학생들의 움직임에 의해 주변 건물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구성에 있어서는 중심성이 사라진 사선적 동선 체계에 의해 독립된 프로그램들의 파편들이 흩어진 형태로 배치되었다. 바닥과 천정의 다양한 레벨 그리고 일관성을 무시한 변화 있는 실내의 마감과 그래픽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우발적 사건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임을 확일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이질적 프로그램들의 배치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동선체계는 전술한 '밀집의 문화'에 대한 변형된 형태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2> IIT 캠퍼스 센터, 외부창호의 시선 조정장치, 2003 / www.chicagolens.net



<그림 13> IIT 캠퍼스 센터, 실내의 인물 그래픽과 사선의 동선, 2003 / www.oma.nl

③ 사건을 일으키는 생성기계로서의 공간: 중앙에 위치한 계단형 공간은 통로로서 때로는 회합장소로서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그러한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픽토그램을 이용한 확대된 초상화, 오렌지 빛의 셀들을 겹겹시켜 위치에 따라 시선이 조절되는 외부창호 그리고 자극적 색상의 과감한 적용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공간적 장치이다<그림 12, 13>. 램 콜하스 자신도, OMA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기능들의 관계가 비록 충돌을 빚는다 하여도 독립적 공존상태가 우연한 사건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기계로서 작용하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베를린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 베를린(2003)

독일이 통일되고 연방정부의 수도가 베를린으로 결정되면서 세계 각국은 베를린에 새로운 대사관을 계획했다. 네덜란드도 미테지구 스푸이강변에 부지를 마련하고 박스형태의 사무동과 그 부지 주변을 둘러싼 주거블록을 제안한 램 콜하스의 안을 적용해 대사관을 신축했다.

① 열린 판과 변화하는 정도의 공간: 8층으로 된 박스형태의 사무동 내부에는 주출입구에서 최상층으로 연결되는 나선형 궤도(trajjectory)가 관통하고 있다. 궤도는 모든 층으로 연결되어 도서관,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경유하면서 연속적 변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무영역은 동선의 궤적을 빼낸 '나머지 공간'에 배치된 개념이다<그림 14>. 외부로는 동선의 결절점들에서 부지 주변의 스푸이강, 텔레비전 타워, 공원 그리고 대사관의 주거블록을 향한 의도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맥락적 연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능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연속적인 변이를 경험하도록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콜하스는 주변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IIT의 캠퍼스 센터에서 이동 흔적으로서 주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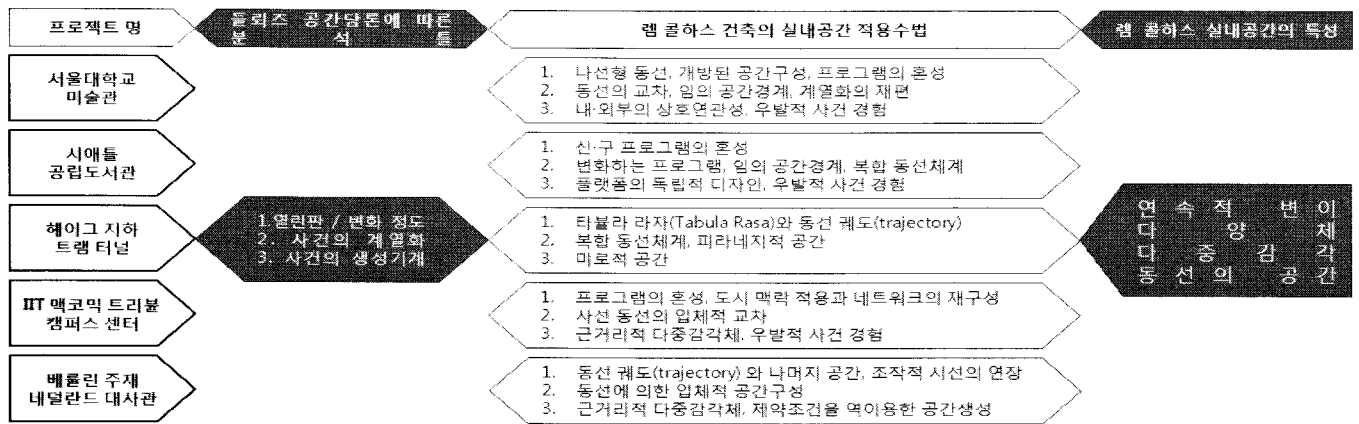


<그림 14> 베를린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 궤도 모형, 2003 / www.oma.nl



<그림 15> 베를린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 부분 노출된 동선의 궤도, 2003

<표 2> 램 콜하스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들뢰즈의 공간담론적 특성



네트워크를 결집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외부로 열린 시선의 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② 사건의 계열화에 의해 의미를 갖는 공간: 동선의 폭과 천정고가 다양하게 변화하도록 하여 내부 층간 연계에 있어서도 입체적 공간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공간 간의 시각적 연계를 이끌어내고 통로의 목적뿐만 아니라 휴게공간, 내부행사를 위한 미팅공간의 역할로도 사용가능한 잠재적 ‘되기’를 의도하고 있다.

③ 사건을 일으키는 생성기계로서의 공간: 궤적은 부분적으로 건물의 외부로 돌출 되었다. 돌출부분은 반투명 소재를 바닥면에 적용하거나 투명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공중 공간을 체험하도록 의도했다. 이러한 공간들은 의외의 감각에 작용하는 공간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콜하스는 대사관 전체 배치계획에 있어서 베를린의 도시계획 지침에 의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창의적 공간의 생성 수단으로 사용했다. 베를린시는 네덜란드 대사관이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형태가 19세기 방식의 도시 및 건축계획의 지침에 맞춰 주변 가구(街區)의 윤곽에 따를 것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상지의 경계를 형성하는 주거블록과 그 내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상자 형태를 제한함으로써 법적 규제와 네덜란드 대사관의 보안과 개방성이란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켰다.²⁰⁾ 이러한 접근은 제약조건을 비롯한 대상지의 환경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 공간을 생성해 낸 결과이다.²¹⁾ 또한 들뢰즈가 베이컨 작품을 통해 주장한 ‘회화의 폭력’에서 인식의 대상과 주체가 전도되어 대상인 회화가 인식 주체인 관람자에게 감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전 장에서는 들뢰즈의 공간담론이 적용된 램 콜하스의 작품을 대상으로 열린 판과 정도, 사건과 계열화 그리고 생성기계란 의미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작품들에 적용된 들뢰즈적 공간구성의 방법과 실천 수법에 근거하여 콜하스의 내부공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속적 변이의 공간: 램 콜하스가 자신의 건축에서 추구하는 공간은 점유자의 이동, 행위, 프로그램 등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연속적 변이를 생성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 구성 수법으로는 불확정적 프로그램을 유발하는 공간과 확정적인 공간을 혼재하도록 하여 우발적 사건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흐름의 변화를 만들고 이런 변화의 점들이 특이점(singula point)이다. 특이점은 다양하게 계열화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장(場, 열계)을 형성하게 된다.

(2) 우연적 사건을 수용하는 다중체(multiplicité)적 공간: 램 콜하스의 작품에서는, 그것이 제약 조건일지라도, 대상 부지의 다양한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적극 수용하는 유연한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지의 형태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기능적 연계성, 시각적 연계성까지 수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성은 내부공간의 구성에까지 이어져 도시속의 다양한 행위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수법은 일자(一者)에 의해 빈틈없이 구성된 기능들로 채워진 공간을 거부하고, 점유자들의 행위가 모여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거나 의외의 공간과 사건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잠재성의 토대(landscape)를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3) 다중감각의 공간: 실내공간에서는 다양한 감각의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폐쇄와 개방의 전도, 서로 뒤섞이거나 분리된 프로그램의 병치시킬 뿐만 아니라 시애틀 공립도서관, III

20) 김문덕, 램 콜하스와 네덜란드 근·현대건축, 태림문화사, 서울, 2005, p.84

21) OMA에서 근무했던 비니 마스(Winy Maas)가 이끄는 MVRDV의 ‘테이터스케이프’, 네터링 리다이크(Neutelings Riedijk)의 역설적 ‘나태함’과 동일한 문제해결 전략임.

캠퍼스 센터에서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서로의 연관성을 무시하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원색의 과감한 적용, 확대되거나 축소된 그래픽의 적용, 단순화되고 과감한 재료의 적용 등이 그러하다. 이것들은 프로그램에 의한 우연적 경험을 배가시키는 표현수법이며 사용자 감각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장치이다. 콜하스는 자신의 공간속에 들뢰즈의 강도 높은 근거리적 다중감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동선의 공간: 전술한 여러 가지 공간적 구성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콜하스의 중요한 공간요소는 동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콜하스 건축 내부의 동선들은 통행만을 위한 동선개념과 달리 공간 자체가 동선으로 존재하기도하고 내부를 가로지르거나 유목적으로 이행하면서 서로를 연결시킨다. 기능적으로 일정하게 배열된 동선에서 경험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꺾이고 휘어진 동선, 중심성이 사라진 공간, 기울어진 경사로 또는 경계가 불분명한 동선이 혼재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변화를 의도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렘 콜하스의 건축 공간은 들뢰즈의 흠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이 함께 존재하는 수용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문덕, 렘 콜하스와 네덜란드 근·현대건축, 태림문화사, 서울, 2005
2. 김원갑, 렘 콜하스의 건축, 시공문화사, 서울, 2008
3. 렘 콜하스, 정신착란증의 뉴욕, 김원갑 역, 태림문화사, 서울, 1998
4. 이정우, 시플라크르의 시대, 거름, 서울, 1999
5.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서울, 2008
6.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서울, 2000
7.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서울, 2001
8. Rem Koolhaas · Bruce Mau, S,M,L,XL, The Monacelli Press, NY, 1995
9. OMA/Rem Koolhaas, El Croquis Vol.53+79, Madrid, 1998
10. 김흥기, 피라네지 동판화 카르체리에 나타난 카프리치오적 공간개념의 생성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6호 통권71호, 2008. 12
11. 이영수·임기택, 들뢰즈 공간담론과 유연적 생산구조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6호 통권 212호, 2006. 6
12. 조영배, MVRDV의 건축에 나타난 공간 구성 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1호 통권66호, 2008. 2
13. Sheri Olson, Its a machine that fragments and reconstitutes the city around it, Sheri Olson, Thanks to OMA's blending of cool information technology and warm public spaces, Seattle's Central Library kindles book lust, Architectural Record, NJ, 2007. 7.
14. www.artnstudy.com, 이정우, 현대조형공간의 혁명: 공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
15. www.d-toren.nl
16. www.oma.nl
17. www.pdp.ca
18. www.west8.nl
19. www.youtube.com/watch?v=2CEdD7DEYdI&hl=ko

<접수 : 2009. 4. 30>